

이상 재해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살펴본 결과는 대상산업체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수에 따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재해자를 대상으로 분석이기 때문에 재해발생 양상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재해자 집단에 대한 분석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2. 산업재해율을 구한 결과는 제지업의 경우 1976년부터 1980년까지 5년동안에 재해건수 261건중 도수율이 25.01, 강도율이 1.33, 건수율이 57.87였으며, 제련업의 경우는 재해건수 209건중 도수율이 18.64, 강도율이 2.04, 건수율이 42.73였다.

3. 근로자들의 연령별 재해발생 건수율은 제지업의 경우 30~34세 연령군이 76.9였고, 25~29세 연령군이 52.7였다.

4. 근로자들의 근무기간별 재해발생 건수율은 제지업의 경우 1년 미만군이 168.9였고 1년미만군이 65.4였다.

5. 재해원인 분석결과는 제지업의 경우 불안전행위에 의한 재해가 85.6%로 가장 많았고, 불안전 설비로 인한 재해가 12.2%,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해가 2.2%였으며, 제련업의 경우는 불안전행위에 의한 재해가 69.5%, 불안전설비에 의한 재해가 26.8%,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해가 3.7%였다.

6. 상해종류별 재해빈도는 제지업의 경우 외상이 72.1%로 가장 많았고, 제련업의 경우는 화상이 34.7%였다.

7. 상해부위에 대한 분석결과는 제지업의 경우 하기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다.

8. 재해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제지업의 경우 경상이 63.3%, 중경상이 17.2%였고, 제련업의 경우는 경상이 40.7%, 중경상이 33%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서 재해발생 빈도는 젊은 연령층과 근무기간 1년미만군과 7년이상군에 높은 빈도를 보였고, 대부분의 재해가 예방가능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해정도는 해가 거듭됨에 따라 심하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근로조건 및 근로보건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이 선 미

본 조사는 198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시내에 위치한 병원 17개소, 학교 36개교, 서비스업소 14개소, 생산업소 44개소 총 111개 기관을 선정하여 여성 근로자의 취업 및 근로조건, 모성보호제도, 근로보건관리를 위한 시설 및 활동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각 기관의 여성근로자중 가장 수가 많은 직종 한 가지만을 선택

하여 조사하였는바 병원의 간호원, 학교의 교사, 서비스업소의 서비스직 및 생산업소의 생산직근로자가 대상이 되었다. 이들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보건관리에 관한 규정 즉 노동기준법, 동법시행령, 근로보건관리규정, 동관리규칙 및 시행세칙 등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그 준수상태를 관제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24 참조).

1. 여성의 취업 및 근로조건

1) 기혼여성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35개 기관(81.5%)에서 결혼하면 퇴직하게 되어 있고, 15개 기관(13.5%)에서는 단산기혼자만을 채용하고 있었다.

2) 1일 및 1주평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 기관이 각각 47개기관(42.3%), 65개 기관(58.6%)이었으며, 여성의 야간근무는 원칙상 금하고 있으나 33개 기관(29.7%)에서는 실제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다. 특히 병원의 간호원은 모두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다.

3) 근무중 휴식시간은 학교, 서비스 업소에서는 대부분 근무기준법의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 반면, 병원과 생산업소에서는 단축하는 경향이 있었다.

4) 유급휴일은 서비스업소와 생산업소를 제외한 전 기관에서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주고 있었으며, 연차 유급휴가는 학교에서만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을 뿐이다.

2. 모성보호제도

1)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에 19개 기관(32.8%)에서는 경미한 업무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산전, 산후휴가를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8개기관(31.0%)이었으며, 31개기관(53.4%)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생후에 30일을 주고 있었다.

2) 수유부의 유급수유시간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학교 1개교(1.7%)뿐이었으며, 47개 기관(42.3%)에서는 생산유가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3. 근로보건관리를 위한 시설 및 활동

1) 여성근로자가 30인이상인 경우에는 휴양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휴양시설이 전무한 기관이 8개기관이나 되며, 27개 기관(35.5%)은 한가지의 휴양시설만을 설치하고 있었다. 휴양시설의 종류로는 병원은 기숙사(82.4%), 학교는 휴식실(50.0%) 생산업소에서는 의무실(78.9%)이 설치되어 있었다.

2) 병원(94.1%), 생산업소(77.3%)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학교와 서비스업소에서는 그 실시율이 저조하였다.

3) 여성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조사대상 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대부분(54.1%)이 채용시와 년 1회의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었다.

4)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94개 기관(84.

7%)이었으나, 이 경우의 치료비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관은 25개 기관(35.2%)에 불과했다.

일도시 기혼 직장여성의 피로도 및 역할에 관한 조사

중양의학 제42권 제2호, 1982.

이 은 숙

1981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주간에 걸쳐 K 시 기혼직장여성 305명(교사; 173명, 외무사원: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해 피로도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역할수행에 관한 사항

대상자의 53.4%가 이중적 역할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고, 50.4%에서 가족이 직장생활을 반대하였다.

가장 못하고 있는 역할로는 부모역할(60.3%)이라고 하였고, 원만한 이중 역할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자녀양육 및 교육, 가사담당, 자신의 건강이었다.

2. 피로도에 관한 사항

a) 자각적 증상의 빈도를 보면 근무전에는 신체적 증상군>정신적 증상군>신경감각적 증상군의 순이었고, 근무후에는 신체적 증상군>신경감각적 증상군>정신적 증상군의 순이었으며 근무후의 자각적 증상의 빈도가 근무전보다 높았다($p < 0.001$).

b) 직종별 자각적 증상 빈도는 근무전에는 외무사원군이, 근무후에는 교사군이 더 높았다.

c) 자각적 증상의 호소도는 35세이상군, 평균직장경력이상군, 그리고 역할수행상 어려움이 많은 군이 적은 군보다 각항 모두 높았고, 직장만족상태별로는 정신적증상군과 신경감각적증상군에서 불만족군이 만족군보다 각항 모두 높았다.

금융기관 근무자의 고혈압 이환상태 및 건강관리에 대한 조사연구